

# 무섭게 치솟던 상춧값 하향세 전환... 원예농산물 가격 안정세

집중호우·태풍 이후 가격 급등 채소류 중순 들어 하락  
정부, 비축·계약재배 등 공급 확대... 할인지원도 지속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등 기상악화로 급등했던 상춧 등 채소류 가격이 한 달 전 가격을 회복하는 등 일부 하향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작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과 함께 할인 지원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파악한 주요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 동향을 보면 7월 중순 집중호우와 이달 초 태풍 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던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안정세로 전환했다.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이 호전된 영향으로 향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면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배추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포기당 5928원으로 전년(6738원)보다 12.0% 낮다. 무도 개당 2925원으로 전년(3144원)과 비교해 7.0% 저렴하다.

다만, 8월 상순 배추(5146원), 무(2614원) 가격이 10% 남짓 상승했다. 계절적 특성으로 연중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기여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온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도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중이던 배추와 무를 작년보다 각각 2배(5800t), 3배(2500t)나 많이 시중에 풀고, 계약재배 물량도 활용해 대응 중이다.

시설채소는 주산지 침수피해와 호우·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에 따라 생육이 지연돼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 청상추(100g)는 이달 상순(2371원)보다 14.2% 하락한 2034원이다.

갯잎 등 일부 품목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채소 대부분이 일조

량 회복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다.

양파는 생산량(중단생종)이 102만5000t으로 전년과 비슷해 가격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 생산량은 31만8000t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해 가격은 전년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재배면적 감소와 저온·서리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과 상품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는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확대해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집중호우 이후 상춧 등 시설채소 가격이 기상호전과 출하 지원 등 공급 여건 개선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기상악화에 대응해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계약재배,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품목별 수급안정 대책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원 한도로 20%(전통시장은 30%) 할인을 지원한다.

23일까지 할인대상 품목은 기상여건 악화



로 가격 변동이 우려되는 양파·상추·시금치·갯잎·담고기·감자·당근·파프리카·배추·무·참외·수박 등 12종이다. 대형·중소형마트, 지역농협 하나마트,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경

로에서 할인 받을 수 있다.

김 정책관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용일기자



'해먹기엔 덩고 사먹기엔 비싸다' 간편식 인기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간편식 및 밀키트 매대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치솟은 외식물가와 무더위로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 이어지는 무더위에 '웨이트리스 아이템' 주목

한낮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패션·뷰티업계에서 무게감을 줄인 '웨이트리스(Weightless) 아이템'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패션·뷰티업계에 따르면 젊은 층 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야외활동에 적합한 선글라스, 신발, 가방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오클라는 쓴 듯 안 쓴 듯 가벼운 착용감이 특징인 아이웨어 '사브제로'를 선보였다. 무게는 약 24g에 불과하다. 기존 제품 대비 프레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차단하기 위한 선글라스가 필수다.

세브레로는 러닝에 특화된 제품으로, 뚜렷한 색상대비를 제공하는 프리즘 렌즈를 통해 지형의 굴곡이나 장애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컷등 부분에는 땀이나 물에 닿으면 더욱 밀



착하는 고정력 높은 고무 소재를 임혀 아이웨어 흔들림에 신경 쓰지 않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무더위가 덜한 시간대에 러닝, 골프 등 야외 스포츠를 즐기거나 활동적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업계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 기능성은 강화하고, 무게감은 낮은 아이템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 "아이스아메리카노 XL 2000원" 편의점 저가커피 경쟁 왜?

편의점업계, 용량 늘리고 가격 낮추거나 할인 행사 진행

고물가 속 편의점업계 커피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주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원두·원유가격 상승을 이유로 커피 메뉴 가격을 올리는 추세지만, 편의점업계는 용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거나 할인 행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해 커피 가격 내리기에 적극적 모습이다.

19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는 9월부터 PB(자체 브랜드) 원두커피 get아이스아메리카노(XL) 가격을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추가 인하한다.

CU는 앞서 지난 4월 get아이스아메리카노(XL) 가격을 21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낮췄는데, 이번 추가 인하로 두 번째 커피 가격을 내리게 됐다.

CU 측은 "원두의 사전 매입으로 안정적인 원두 재고를 확보했고, 자체 마진을 줄여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GS25는 용량을 늘리고 가격은 낮춘 특대형 커피로 업계 주목을 받았다.

GS25는 지난달 PB 원두커피 '카페25'의 새 메뉴로 '아이스아메리카노 점보'를 출시했다.

업계 최대 수준의 특대형 원두커피로, 총 용량은 780ml 점보 사이즈다. 용량은 커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졌다. '아이스아메리카노 점보'의 가격은 2400원으로 기존 아이스아메

리카노 대비 100ml당 가격이 30%가량 낮다.

GS25는 여기서 나아가 카페25 커피 제품의 할인을 진행한다. 8월 한 달간 오전 6~9시까지 아이스아메리카노 2종(큰컵 2100원, 점보 2400원)에 한해 삼성·현대 카드로 구매 시 30% 할인 판매한다.

또 8월 한 달간 아이스아메리카노 2종(큰컵, 점보)을 카카오페이로 구매하면 1000원페이백 행사도 진행하고, 카카오페이로 구매 시 (1200원)는 2+1에 판매한다. 카페25의 ICE진짜우라떼큰컵(2900원)에 대해선 20일까지 1+1 판매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친환경 반값 원두커피 구독 서비스 '그린아메리카노'를 운영 중이다.

이슬비기자

## 늘어나는 고령노동자... '정년연장' 논의로 사회적 대화 물꼬 트나

55~79세 10명 중 6명은 노동자... 고용률 상승 이끌어

일하는 노년층이 늘면서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당선인 시절부터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대통령직속 사회정책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정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벌어진 '금속노련 사태'로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단계적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청원을 시작하면서 연일 대립각을 세웠던 노정이 다시 대화태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평균 73세가 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례없는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 정부가 노동계도 정년연장 화두 꺼내

정부가 일하는 노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총인구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2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건 그 속도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이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7년이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다.

우리나라의 법정정년은 2016년 한 차례 연장된 뒤 8년째 '60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력난 심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직인사위원회에서부터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 역시 정년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일치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지금도 법정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 차이 나는데 10년 뒤에는 그 간격이 5년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자를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

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 끊겼는데... 노사정 논의 가능할까

경사노위는 지난달 말 이 문제를 논의할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에도 노동계 참여 없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격분하면서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후 유일한 노동계 대화 파트너였던 한국노총 없는 경사노위 정식회의체가 열릴 수 없는 구조다.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총들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점을 관계 회복의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쉬운 해고'로 대변되는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하면서 경사노위를 탈퇴했지만, 이듬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한국노총도 대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 다만 대화를 시작할 명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정부와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금속노련 사태는 그 상황을 더욱 안개 속으로 밀고 갔다"고 했다.

뉴스스